

Maison

marie claire

2025 DECEMBER
WWW.MAISONKOREA.COM

COVER STORY
시누아즈리 무드의 살롱

JEWELRY & ART
명상적 회화와 만난 샤넬 주얼리

FAIR REVIEW
디자인 마이애미 파리

TASTY & TRAVEL
홍콩 미식
직지사 명적암

HOLIDAY SEASON
크리스마스 선물 아이템

KITCHEN NOW

하이엔드 주방 트렌드와 라이프스타일별 쇼핑 아이템

정가 9,000원



Inside Design Miami Paris

올해로 세 번째 에디션을 맞은 디자인 마이애미 파리. 작은 오브제의 힘부터 아르데코의 귀환, 동물적 조형까지 올가을 파리를 움직인 세 가지 디자인 키워드를 알아봤다.

EDITOR 원지은



© Paso Doble for Yves Macaux Gallery, Ivan Erofeev

작은 것들의 힘

손에 쥘 만큼 작은 오브제들이 드러낸 의외의 존재감.

1 비엔나의 균형감

벨기에 브뤼셀에서 온 신규 참가 갤러리 이브 맥소 Yves Macaux는 20세기 초 건축가 요제프 호프만과 디자이너 콜로만 모저가 설립한 비너 베르크슈테테 Wiener Werkstätte의 장식성과 초기 모더니즘의 절제된 우아함을 함께 보여주는 작품을 선보였다. 요제프 호프만의 황동 용기와 커틀러리, 아돌프 로스의 장식 시계가 주요 작품. 바로크적 화려함과 미니멀한 정제미 사이의 시대적 금속공예의 이중성을 다채롭게 보여줬다.



© Paso Doble for Yves Macaux Gallery, Ivan Erofeev



© MiniMasterpiece

© MiniMasterpiece

2 주얼리로 읽는 금속의 표정

두 해째 페어에 참여한 갤러리 미니마스터피스 Galerie MiniMasterpiece는 이우환, 피에르 샤팽, 안드레스 세라노, 파블로 레이노소에게서 영감을 받은 주얼리를 선보였다. 작지만 금속의 질감과 선이 또렷하게 드러나, 장식품이라기보다 손 안에서 완성되는 작은 조각 작품에 가깝다. 착용하는 순간 곧바로 '작품을 소유'한 것 같은 감각으로, 금속 한 조각이 어떻게 새로운 형태와 표정을 만들어내는지 확인할 수 있다.

© MiniMasterpiece



© MiniMasterpiece